스파이더맨

(눅18:15-34)

15.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스파이더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스파이더맨, 영화제목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안 보신 분을 계실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슈퍼맨, 배트맨과 함께 미국이 만들어낸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히어로 중 하나이죠.
주인공, 피터 파커가 대학생 때, 생물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물학연구소에서 방사능을 쬐어서 유전자를 바꿔놓은 거미 한 마리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상자 바깥으로 나와서 이 주인공을 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변형된 거미의 독이 주인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인공의 유전자가 바뀌게 되고, 손목 밑에서 거미줄이 분사되는 그런 거미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스파이더맨이죠.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이 초능력을 가지고 모든 부정과 부패와 맞서서 뉴욕시를 지켜나가는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는 모습을 시리즈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편으로 쏠려있는 것 같으니까,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블랙스파이더맨을 하나 만들어내서, 원래 스파이더맨이 블루 바탕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슈트인데, 온통 검정색의 거미모양의 슈트를 입은 블랙스파이더맨이 또 출연을 하게 되지요.
원래의 레드스파이더맨은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초능력을 사용하는데, 블랙스파이더맨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억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분출되면서 초능력이 사용되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로 출연을 해서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스파이더맨입니다.
거미로 태어나서 거미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적 전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과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시지요?
마태에도 나왔고 마가에도 나왔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다는 말을 들은 주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기가 몹시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삼 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예고하시는 것까지 묶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밀가루 반죽하듯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서로서로 앞의 부분을 설명해주면서 이 본문들이 이어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부분 중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얘깁니까?
제자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 유대사회에서는 유명한 랍비가 자기 아기를 만져주면서 축복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관습이 있었으니까, 그 관습을 따라서 어린 아기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금합니다.
금한 이유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었던 대로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즉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간청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높이려 하면 낮아지고 낮추려 하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린 아기들이나, 어린 아기들을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받으신 말씀은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라는 얘기는 7세 미만의, 그러니까 태어나서 6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뜻을 알 리가 없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알 길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는 것을 나무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

니다.
어린아이, 6세까지의 아이는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6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은 마음에 의심이 없고 순수하고 마음이 낮다, 그런 6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의 심리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맞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게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모두가 다 인간인 한 죄인이고, 그 어떤 부모도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옳고 바르게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아이도 부모의 가르침대로 하지를 않고, 나쁜 방향으로 나가고 욕망을 키워나갑니다.
다 그 속에 죄악의 뿌리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스파이더맨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블랙스파이더맨으로 성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레드스파이더맨으로 변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도대체 인간이 거미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의 비유인가?
갓난아기서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이 하나님나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6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 받아들이는데,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6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6년 동안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일까요?

처음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젖을 먹이고 보살펴주는 그 어머니와 자기를 따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그냥 나와 같은 덩어리로 묶여있는 줄로 알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나와는 다른 개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세 살까지 분리개별화가 일어납니다.

아동심리발달을 연구하는 아동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라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분리개별화작업이 일어납니다.
분리개별화라는 것은 엄마라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말하게 되는 '너'라는 자리에 있는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안경 쓴 아빠를 보면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먼저 태어난 누나 형 언니 오빠를 보면서 나와 다른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마와 아빠와는 다른 자들이고, 나와 같이 엄마와 아빠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6년까지의 과정이 뭡니까?
마음으로 태어난 아기가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고 '나'고, 나는 아빠가 아니고 '나'고, 나는 형이 아니고 '나'고,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나'다, '나'라는 자아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태어난 마음은 '너'라고 하는 여러 관계의 줄을 만들어가면서 '나'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가, 드디어 7세가 넘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 또 다른 국면에서 거미줄을 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친구라는 거미줄을 쳐나갑니다.
이렇게 해나가다가 청년기가 되면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나'라고 하는 거미줄에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그 아내는 그 남자를 보고 결혼하지만, 그 청년이 쳐놓은 관계의 거미줄에 걸려드는 겁니다.
물론 이 남자도 마찬가지이죠?
아내가 그동안 자라면서 만들어놓은 거미줄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 여자 하나만 달랑 만나는 게 아니고, 남자 하나만 달랑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서로 걸려드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새로운 거미줄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깁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몸이 있고 이 몸으로 접하는 세상이 있어서, 몸을 중심으로 나를 형성해나갔습니다, 이게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 안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 내 아버지가 있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승천해서 가계십니다.
이제 몸을 통해서 바깥쪽 세상에서 관계의 거미줄을 치던 우리들이, 어린아이가 자아를 형성하면서 관계의 거미줄을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과 집안에서 쳐나가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이 안쪽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나라 천국 쪽을 향해서도 몸 대신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관계의 거미줄을 쳐가면서 '나'를 새롭게 형성해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쳐놓은 관계의 거미줄이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의 아빠고, 엄마고, 이런 관계의 거미줄에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슨 곤충이라도 되듯이, 날아가는 날벌레라도 되듯이,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려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아빠와 엄마와 관계를 맺어가듯이 그렇게 이 마음 안쪽에 있는 천국을 향하여 새롭게 마음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관계의 거미줄을 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바깥세상 이 땅 위에서 '나'라고 하는 거미줄이 형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거미줄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기의 마음처럼 모든 관계의 거미줄이 다 끊어진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나라 쪽으로 다시 거미줄이 쳐져 가는, 즉 블랙스파이더맨이 멈춰지고 새롭게 레드스파이더맨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면 호적상의 아무개의 아들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서도록 하나님나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형성된 '나'로서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롭게 '나'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여야 진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말해 6세 미만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얘기 끝에,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됩니까?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마음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이 인격으로 되는 과정 중에 맺어지는 관계의 줄들, 그 기본적인 '나'라는 정체성, 자아가 형성되는 장소가 집입니다.
그 집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부모, 형제, 그리고 아내, 가장 '나'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거미줄의 내용이 집에 다 있습니다.
그 집을 버리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호적을 파낼 수도 없는 거고, 집을 나가 출가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버리느냐, 그 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부자 청년이 그대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다들 기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십자가사건이라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무엇에 대해 죽습니까?
블랙스파이더맨으로써 이 땅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형성해갔던 그 모든 관계의 줄을 다 끊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는 이제 마음 안쪽에 있는 하나님나라를 향해서 아기로 다시 태

어난다는 얘깁니다.
다시 태어나서 이제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형성해나가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집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형성해 나갔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었다가 모든 세상의 거미줄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서는 이제 하나님나라 쪽을 향하여 하늘아버지와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를 형성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가 형성이 되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가 형성이 된 그 거미줄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거미줄에 아내가 걸려들고, 자식들이 걸려들고, 형제들이 걸려들게 돼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내가 맺어져 있는 이 거미줄에 그들이 걸려들 때, 백배로 은혜로운 아내, 백배로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고, 여러 배로 감사의 재목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블랙스파이더맨으로 맺은 관계의 거미줄들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이 걸려드는 것처럼 한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블랙스파이더맨으로써 이 세상에서 맺은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천국을 향하여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것, '나'가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고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하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6세까지 이루어지는 자아형성의 단계가 하나님나라와의 관계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블랙스파이더맨이 레드스파이더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 위에서 맺게 되는 관계의 거미줄들,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물에 대한 관계, 위치나 신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다 끊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롭게 아버지와 주님과 천국에 대해서 관계를 맺으며 자아로 형성되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